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

- 최근의 물가상승은 북아프리카·중동지역 긴장 이전에는 주로 원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발생했으며 이후에는 원유생산 중단과 수송차질 등 공급 부족에 기인하여 발생함.
 - 국제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은 2010년 중반이후 상당히 상승했는데 12월의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 이후 국제유가는 40%(브렌트유) 급등했으며 식료품, 농산물, 금속, 광물의 가격은 2008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함.
 - 원자재가격은 에너지가격이 생산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(농산물은 1/3이상) 에너지가격 상승은 곧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짐.
 - 12월 이전의 물가상승은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,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투기수요 증가에 기인함.
 - 12월부터는 공급차질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비아의 생산차질을 보충하면서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생산 여력이 소진될 경우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.
- OECD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1년차 물가상승은 0.2%p, 2년차에는 0.1%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국제유가 상승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.
 - 튀니지사태 이후 25달러 상승한 국제유가는 2012년 OECD국가들의 GDP를 0.5%p 하락시키고 물가는 0.75%p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됨.
 -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투자비용 상승, 가격변동성 증가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, 실질자산 변동에 따른 가계저축 변화 등 동태적 효과는 제외하였으며 튀니지사태 이전에 국제유가가 10달러 상승한 것을 포함하면 GDP 하락과 물가상승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됨.
 - OECD는 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과정을 살펴볼 때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적절히 통제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.
 - 다만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. (OECD, Wall Street Journal 3/18)